



6월항쟁 31주년 광주·전남 행사위 출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1주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얼차려 받는 대학...갈길 먼 인권의식

탈의실 없는 장애인 수영교실·학폭 가해 학생 망신주기 등 광주인권사무소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1214건 진정 접수

전남의 한 대학교수는 소망 교육을 진행하던 도 중 일부 대학생들이 떠돌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조교에게 특별교육을 지시했다. 이에 조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 134명 전원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팔벌러 높이뛰기'와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 나기' 등을 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해당 대학교수의 자의적인 체벌 관행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진행했고,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이 있음에도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체벌 성격의 특별훈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광주인권사무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지난해부터 처리한 주요 인권 진정 사례를 내놨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14건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이 중 조사가 종결된 일부 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에게 체벌형 얼차려를 주고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 탈의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휠체어를 타야 하는 한 지체장애인은 자치단체가 실내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다.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 샤워보조기구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이 1990년대에 준공된 점 등에 미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체육회의 수영장 사용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진입경사로, 점자블록, 입수보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자폐를 겪고 있는 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동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보호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스포츠편터 대표로부터 수영장 이용을 거부 당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한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도록 한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까지 시켰다.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히고 피해 학생이 받을 몫인 이유도 알리도록 했다. 이미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분리돼 교감과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한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측이 아동권리 협약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한 것도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 학교에선 토의 성적 기준 점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기간 중 토의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별점을 부여했는데, 이도 인권 침해(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로 판단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해수부, EEZ 불법조업 中 어선 7척 첫 폐선 조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7척을 처음으로 폐선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된 중국어선 7척을 법원판결 확정에 따라 폐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폐선 조치는 지난 2015년 한·중 정부가 제 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담긴 몰수폐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이날 폐선 조치는 지난 2015년 한·중 정부가 제 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담긴 몰수폐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달름	20:11
해질	19:40	달집	05:52

낮 더위 기승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26	보성	구름 많음	18/25
목포	구름 많음	18/23	순천	구름 많음	19/27
여수	구름 많음	19/25	영광	비온뒤 맑음	17/24
나주	구름 많음	18/25	진도	구름 많음	17/24
완도	구름 많음	18/26	전주	구름 많음	19/25
구례	차차흐려져 비	18/26	군산	비온뒤 맑음	18/23
강진	구름 많음	19/26	남원	구름 많음	19/26
해남	구름 많음	18/25	흑산도	구름 많음	16/21
장성	구름 많음	18/24			

◇ 바다 날씨

	종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서~서	0.5
	먼바다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남서~서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남서~서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57	02:48	19:57	14:42
여수	03:27	09:23	15:19	22:00

◇ 주간 날씨

31(목)	6/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17/26	15/31	16/31	16/31	16/31	17/29	18/28

◇ 생활지수

- 주요: 주의
- 식중독: 주의
- 매우높음
- 지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北 총석정 포함 관심

전남대, 유네스코와 6월 몽골 회의서 협의...광주시 "논의된 바 없어"

전남대학교가 북한 해금강의 '총석정(叢石亭) 주상절리대'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네스코와 협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은 유네스코 관계자로부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범위를 북한 총석정 일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오는 6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깊이 있게 협의하자는 답신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전남대 사업단의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협의의 일정을 이면에 보냈다. 백백이 솟은 돌기둥(叢石)이라는 뜻의 '총석정'은 북한지역 강원도 통천군 동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협약이 오렌 세월 비바람과 파도에 부딪혀 그 면들이 갈려져 떨어지면서, 마치 무등산의 서석

대, 입석대, 광석대 등처럼 6각형, 8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돌기둥이 조성돼 있다.

유네스코 파리본부 세계지질공원 책임자인 패트릭 맥키버(Patrick J Mc Keever) 박사도 "인류공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 사업 이념에 부합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대는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총석정 지정이 남북교류의 새로운 물꼬가 될 지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식적으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범위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논의된 바 없으며, 그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9월 개강

산자부 사업 선정...2년간 14억 지원

조선대학교는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대상에 선정돼 2년간 14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조선대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문화콘텐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 산업현장 선도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교과목을 개발한다.

해외 6개 학교와 국내의 100여개 업체·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산학프로젝트형 티터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오는 9월 1일 개강하는 융합전문대학원은 조선대 솔마루 2층에 VR 스페이스, 스마트 팩토리 등 최첨단 실습용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5명의 석사와 5명의 박사를 선발한다. 학생에게는 4학기 장학금 지원, 국외 대학연수 및 현장실습비 지원, 매학기 글로벌 산학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제 63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8. 6. 5(화) ~ 6. 8(금)

개요

-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1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5,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4 SC제일은행빌딩 10층(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